가정예배 순서지 〈2020. 4. 5〉

·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하셔도 좋습니다)

추천 찬양: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 찬송가 149장 / 찬송가 265장

· 마음 모아 성경을 읽읍시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22-31

· 읽은 후에 온 가족이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1) 우리 가정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지,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세요.

2)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 금식, 미디어금식, 성경쓰기 등).

· 본문 말씀 나눔 (가장 혹은 예배 인도자가 대표로 읽으세요.)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성만찬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문 주위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빠가 유월절 음식(무교병, 쓴 나물, 어린 양고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후에, 함께 시편113-114편을 부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118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끝맺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을 기념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가장으로서 유월절 음식의 새로운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떡이 떼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몸이 찢기실 것과 포도주처럼 붉은 피를 쏟으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문 주위에 뿌려진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찢기실 몸과 피가 세상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양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마음에 깊이 새겨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통을 따라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신 목적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출발하실 것입니다.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8-21절에서 열둘 중 하나가 당신을 넘겨줄 것을 예고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두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보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 애를 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유혹 앞에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흩어지겠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 후에 다시 만나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과 절망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목자되시는 예수님께로 모일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고들은 머지않아 정확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다 아시고, 차근차근 십자가 죽음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음모나 유다의 배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시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유월절 어린양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 **함께 기도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돌아가면서 혹은 대표자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 하세요.**